

우리말 소리 고정의 필요성

-영남말의 경우 -

박지홍

1. 일 럭 두 기

먼저, 내가 이 글에서 '경상도'란 말과 '영남'이란 말을 곧 이 구별지어 쓴 까닭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그것은 이제 영남 출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낱말의 개념이 너무도 달리,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이 사람도 영남 출신이다.

'부산'과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상도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경상도가 곧 영남이었고 영남이 곧 경상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 사정이 다르다. '영남' 하면 이는 '경상도'와 '부산'과 '대구'를 합친 지역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 글에서 곧이 경상도란 말과 영남이란 말을 구별지어 쓴 것이다.

2. 앞 머리에

현재, 대한민국에는 말소리의 억양으로 보면 크게 두 '길이'의 말이 자리잡고 있다. 곧 그 하나가 '높이' 억양을 가진 영남말이오, 다른 하나가 '길이' 억양을 가진, 영남을 뺀 서울을 위시한 모든 지방말이다. 이렇듯 이 두 지방말의 억양은 다르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표준 억양은 '길이' 억양이다.

그런데, 말소리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는 많은 영남 출신들이, 서울말의 '긴소리'와 영남말의 '낮은소리'를, 그리고 서울말의 '짧은소리'와 영남말의 예사소리 '높은소리'를 같은 억양으로 잘못 느끼고 있으며, 서울말의 억양과 영남말의 억양을 같은 억양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말의 억양은 소리마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데, 그 소리남이 영남 사람들의 과에는 긴소리는 마치 낮은소리처럼 들리고, 짧은소리는 예사소리나 높은소리로 들릴 뿐이다. 서울말의 억양에는 결코 높낮이가 없다.

서울말의 억양은 긴소리 (→)와 짧은소리 (→)로 이루어져 있다. 보기로 (1)적다(:많다)와 (2)적다(-글을)를 두고 살펴보면 (1)의 첫모음은 ㅏ:로 소리나고 (2)의 첫모음은 ㅓ로 소리난다. 즉 (1)의 /ㅓ/는 긴소리이도, (2)의 /ㅓ/는 짧은소리이다.

이에 비해, 우리 영남말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억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말은 서울 억양과는 달리 세 종류로 되어 있다. 곧 높은소리(▶) 예사소리(▶) 낮은소리(▶)가 그것이다.

보기를 들면, (1)말(=애기)은 낮은소리이고, (2)말(=10되)은 예사소리이며 말(=짐승 이름)은 높은소리이다. 그러나 서울말에서는, 이는 (1)은 /ma:1/(긴소리)이 되고 (2)와 (3) 다 같이 /mal/(높은소리)가 된다.

이렇게 서울말과 영남말은 그 억양이 크게 다르다.

그런데, 서울말과 영남말을 같은 억양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 데는 큰 까닭이 있다. 그것은 대개의 경우 서울말의 긴소리는 영남말의 낮은소리에, 그리고 그 짧은소리는 예사소리나 높은소리

에 맞서 있기 때문이다. 예에 올린 (1)적다(많다) (2)적다(-글을)가 그 좋은 보기이다. (1)적-(긴소리 : 낮은소리) (2)적-(짧은소리 : 높은소리) 이렇게 맞서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도 상당히 있다. '이력서'의 '이' 등이 그 보기이다. 이는 '긴소리 : 높은소리'로 맞서 있다.

어떻든 우리말의 표준 억양은 '길이'이다. '높이'가 아니다. 그러니, '높이' 억양은 언젠가는 '길이' 억양으로 통일되어 가야 할 것이다.

3. 본 론

일정 떼 일이다. 그때만 해도 영남출신들은 거의 영남에만 살았고, 서울출신들은 거의 서울에만 사는 것이 예사였다. 아버지는 영남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만 산다는 이런 일은 곡히 드물었다.

혹 불일이 생겨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찻속은 흡사 시장처럼 시끄럽다. 그러나 차가 김천역을 지나게 되면 차 속은 조금씩 조용해지다가 차가 마침내 대전역에 도착하고 조금 지나면, 차 안이 갑자기, 국민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끝나서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처럼, 너무도 조용해진다. 이는 경상도 사람들이 거의 대전에서 내리고, 그 대신 충청도 사람이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내려올 때이면, 차가 대전에 올 때까지는

아주 조용한데, 대전을 지나면 몇 정거장 안 가서, 차안이 일시에 떠들썩하며 시끄러워진다. 마치 국민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다. 대전부터 영남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공경을 볼 때마다, 아직 중학생이었으나 영남 사람으로서 관히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언젠가 최현배 선생께서 나에게 '박 선생, 우리 영남 사람들은 어째서 꼭 큰소리를 네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하나요? 학생들에게 글 가르칠 때 좀 일찍 주시오' 하시면서 딱한 표정을 하신적이 있었는데, 우리 영남 사람들이 맨 먼저 고정해야 할 일이 이 일이다. '작은소리'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하겠다.

서울 말은 길이 억양이므로, 감정이 절정에 이를수록 소리마디는 더 길어 가니 그럴수록 어절과 어절 사이의 휴식도 길어지고 말소리는 더 또렷해져서 말을 나직이 하더라도 분명하여 잘 통한다.

그러나, 영남말은 높이 억양이므로 감정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면 소리마디의 억양은 높아지고 반대로 그 길이는 더욱 더 짧아져 마침내 어절과 어절 사이의 휴식은 거의 없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영남 사람들은 전달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말소리를 더욱 크게 내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영남 사람들은 대화에 있어 어떤 경우라도 나직이, 또 박또박, 또렷이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그리고 이때, 영남 특유의 '소리의 바뀜'에도 크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 손이 → 소 이 [sɔ i] 방이 → 바 이 [pɔ i] 의 현상등은 곧이 피해야 할

것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들어 보면, 경남 진해 출신이신, 한글학회 이사장 허 응박사는 언제나 나직이 또렷또렷 또박또박 얘기하시는 데, 이는 영남 사람의 소리 고정에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

그런데, 영남말이라 하여 모든 고장말에 다 길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산을 익시하여 그 변두리인 김해, 창녕, 밀양, 양산(구 기장군은 제외)을 빼 모든 영남 지방의 말소리는 '길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부산에서 멀어갈수록 또렷하다.

그러나 영남말의 길이는 뜻을 나누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구실 밖에 못하니, 영남말의 억양은 역시 '높이'이다. 영남말의 억양을 '길이'로 생각하는 이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어떤이는 영남말은 높이 억양이므로 말이 '야'하고 서울말은 길이 억양이므로 말이 '아'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은 큰 잘못이다. 일본말은 영남말과 같이 높이 억양을 지닌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도 말인 도오쿄오 말이나 일본의 옛 수도 말인 쿄오또 말은 아주 아하다. 이것은 수도말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갈리고 닦이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높이 억양이므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론은 성립될 것 같지 않다.

또 어떤이는 말이 야하고 아함은 억양이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 영남 사람들은 이왕에 지닌 영남말을 다듬어 쓰는 것이 타당한 길이 아니겠느냐? 균이 가당찮은 노력을 하여 서울 말씨를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한 나라가 가장 이상적으로 크려면 지방색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 지방식이 없어지려면, 모든 지방말이 하나의 표준말로 통일되어야 하는데 이 지방말이 나누어지는 고비는 억양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나라 모든 지방 사람은 서울 억양을 빨리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투리를 다듬어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도 말은 천년 2천년의 긴 세월에 걸쳐 역사와 문화를 통해 다듬어진 말이다. 높이 억양으로서 오늘에 영남말이 현재 서울말 만큼 달아지려면 가기에는 또한 너무나 긴 세월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사투리를 쓰는 고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빠른 세월 안에 말의 억양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 크게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높이 억양을 길이 억양으로 바꾸어 가는 데 있어, 영남 지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앞에서도 올렸지만 '부산, 양산, 밀양, 창녕, 김해' 지방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그레도 길이를 그 말 속에 혹은 적게 혹은 많이, 어떻든 지니고는 있으므로 이 지방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실례를 들어 보면, 민주당때 국회의장을 지낸신 곽 상훈 선생의 출신은 '부산'이오,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을 지낸신 박 순천 여사의 출신은 경남 '기장'이며, 공화 정권 때의 박 정희 대통령의 출신은 경북 '구미'인데,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들은 이 세분의 말소리를 아직 익히 기억하고 있다.

길이를 전혀 가지지 않은 부산말과 길이를 가지기는 했으나 부산 변두리 말인 기장말과 부산에서 헐씬 떨어진, 아니 부산보다 헐씬 서울에 가까운 곳인 구미의 말에서, 우리는 실제로 언어 교

정의 길잡이를 찾아 낼수 있다. 길이를 지닌 말은 같은 영남말이 면서도 지니지 않은 말보다 억양이 훨씬 다듬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서울 억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이 고장 말들도 역시 길이는 뜻과 관계 없이 높낮이에 대등하여 부수되어 있을 뿐이니, 큰 노력이나 각성 없이는 그 고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연 상태 그대로 둔다면, 이는 결국 북과 서의 영남 경계에서부터 천천히 길이화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우리 영남말의 높이를 길이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다. 그 하나가 아직 발성기관이 털 굳어진 국민학교 어린이 들에 대한 말소리 교육이오. 다른 하나가 종고교·대학·성인사회에 대한 언어 교정이다.

국민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영남의 국민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은 모두 중부방언(서울, 경기, 강원, 충청)을 쓰는 이가 맡는 일일 것이다. — 광복 직후 이 일이 논의된 일이 있다. — 그러나 이 일은 어디까지나 이상이지 실현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가장 바람직한 길은 대대적인 언국 수업이다. 이는 억양 교정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텔레비전의 안방극장에 자주 등장하는 저, 정 윤희(부산 출신)와 비슷한, 억양으로 까지는 접근되어 갈 것이다.

다음으로 종고교·대학·성인 사회의 언어 교정이다(종학교는 어쩌면 국민학교에 준할지도 모르겠다). 이 중에서 '높이'를 '길이' 억양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 학생층의 경우면 거처를 중앙으로 옮긴 학생은 혹 가능해

지 기도 하겠지 만.

그러니 영남 방언을 쓰는 이들은 부득이 높이 억양을 다듬어서 언어생활을 함으로써 과도기를 메워나갈수 밖에 없다. 방법은 이렇다.

첫째는 '이 고장 특유의 소리 바뀜'을 바로 잡으면서, 나직이·또 박또 박·또렷이 말하기를 유의해야 하겠고,

둘째는 되도록이면 길이 억양과 대응이 이루어질수 있게 고정하면서 높이를 수평으로 접근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래야 서울말을 쓰는 이와의 대화에 있어 서로 큰 저항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의사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부산 출신이오, 아내는 서울 출신이다. 어떤날 이 부부가 '이력서'를 두고 남편은 '이력서'로 발음하고 아내는 '이:력서'라 발음하여 서로 거슬려서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하고 크게 싸웠다고 했다. -물론 그들은 들이가 다 영남 억양과 서울 억양을 같은 억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이 크게 유의해야 할 점이다.

'광복(光復)'이란 말의 '광'은 같은 영남 출신 사이에서도 사람에 따라 '광복' 이렇게 높은소리로 내기도 하고 '광복' 이렇게 예사소리로 내기도 한다. —이는 한자의 억양에 따라서 응당 '광'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우리말에 굳이 한자본고장의 억양까지 상관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데 '광(光)'을 '광'으로 소리 내든 '광'으로 소리 내든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경우, 서울말은 높이 억양이 아니므로, 수평으로 접근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짧

'은소리'와 '예사소리•높은소리'의 대응에서는 되도록이면 예사소리로 대응 시켜 나가는 것이, 서울말로 고정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의 '이력서'의 '이'의 경우와 같이, 아무래도 대응을 이루어 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들 말은 영남말과 서울말의 억양의 비교를 가로막는 커다란 해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이들 말을 사전을 통해 먼저 낱낱이 찾아 네어서 정리해야 하며, 나아가 '이:력서'를 '이력서'로 다듬어 나가는 데 서슴하지 않아야 하겠다. 이런 선행 조건이 있은 후 타야 영남말의 억양은 쉽게 서울말의 억양으로 옮아 가게 될 것이다.

<<부산대학교 사법대학 교수>>

* 편집자 주 : 이 글에서 "억양"이란 용어는 좁은 의미의 말의 "가락" (intonation) 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